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2.10/11

vol.292

바다, 바다가 보고 싶다!



www.hanbeot.org

“하나의 빛, 모두의 빛”



한 빛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 · 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모차 장애인들에게 기증)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 여행 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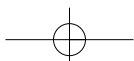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고양시지속종합복지관 운영

(고양시 지속동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마지막 여행”

담당의사가 부인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알린다.

“이제 택으로 돌아가서 준비하세요. 6개월 정도입니다.”

말기암 환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날마다 몸이 가라앉으며 애증으로 부대끼던 생애의 기억도 차츰 꺼져간다. 이젠 자녀들조차 약 냄새 찌든 방에 머물러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떠나야 하는가?’

루게릭이나 근육위축증 같은 희귀질환자도 마찬가지이다. 침대에 누워 천정만 올려다 보다 스러진다. 그리고 자신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는 식구를 바라보는 노인들... 죽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가족에게 분리되어 쓸쓸하게 죽는 일이다.

미국에는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 가족여행’을 보내주는 복지재단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이라면 꼭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라며 사랑하는 가족과 추억여행을 마련해 주고 있다.

영국에도 마지막 여행을 꾸며주는 단체가 BBC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다. 이는 한 구급대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바다가 보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 주다 시작되었다.

한벳도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근위축 같은 장애인에게 바다구경을 시켜주며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되는지를 보았다. 특수차량과 장비도 마련해놓았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여행비다.

이 소식을 들은 만리현감리교회와 서중석 박사(연세대 재단이사)가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한벳의 「마지막 여행」

- 말기암 환자(장애인)의 가족여행이나 부부 여행
- 여행지 :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관광지나 환자가 원하는 곳(고향, 추억 장소)
- 일정 : 1박 2일 또는 2박 3일

마지막 여행에 동행할 자원봉사자와 기금 기부자를 기다립니다.

상담 : 02)393-0661

여행은 첫사랑이다. 가슴 설레니까.

이진영(시인, 수필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 늘 더 많은 곳을 보고 글에 담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내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뼘투어와 두 번째 여행이다.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가면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다.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여행은 어쩌면 잠시 허용된 날개일지 모른다. 그 날개의 펄럭거림이 아주 기분 좋은 현실로 다가왔다.

먼 길 달려온 피로를 풀어준 것은 저녁식사 후에 산책한 묵호항의 해랑전망대였다. 화려한 조명으로 밤바다를 밝히는 불빛과 방파제에 부딪히는 시원한 파도소리가 큰 울림으로 가슴을 쳤다. 힘들었지만 잘 견디고 살아왔다는 격려의 소리 같기도 했다.

옥계면의 한국여성수련원 장애인용 숙소는 아주 좋았다. 편의시설도 좋았고 아침에 잠이 깨어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아침에 먹은 곰치국의 맑고 시원한 국물 맛도 일품, 사실 난 처음 먹어 보았기에 조심스러웠는데 입가에 맴도는 그 맛이 잊히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이번 여행의 최고 방문지는 삼척 초곡항 용골촛대바위였다. 비취색 바다에 떠 있는 바위 섬들엔 하얀 물거품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더 머물고싶었지만, 일정에 떠밀려 나오며 촛대바위에 소망의 불 하나 켜놓았다. 막막하거나 힘들 때 그 불빛을 떠올리려 한다.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어서 할 만 한 거란다. 떠날 때의 낯선 설렘이, 익숙한 내 거처까지 따라왔다. 바다, 바위를 때리는 파도, 동행했던 분들과의 기억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출렁일 것이다. 푸른 시 한 편 건질 듯한 예감에 행복해진다.

한뼘 장애인 여행 02)702-1515

장애인 동해안 관광

지난 10월 18일 - 19일과 10월 23일 -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8명과 보조인 13명 모두 21명이 동해안 관광을 즐겼습니다.

18 - 19일 코스

18일 : 서울 - 영월 - 동강 - 정선(병방치) - 묵호(해랑전망대) - 옥계 여성수련원 숙박

19일 : 여성수련원 - 묵호 스카이벨리 - 삼척 초곡촛대바위 - 망상해수욕장-서울

23일 - 24일 코스

23일 : 서울 - 삼척 새천년도로 - 묵호 스카이벨리 - 해랑전망대 - 옥계 여성수련원

24일 : 여성수련원 - 망상해수욕장 - 정동진 선크루즈 - 한계령(단풍) - 서울



삼척 초곡항 촛대바위



묵호등대 스카이벨리



정동진 선크루즈



한계령에서



코로나19와 쿠데타로 막혔던 미얀마를 2년 만에 방문합니다. 쿠데타 여파는 어떤지? 놀이터를 만들어준 보육원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린이잡지 제작과 크게 올랐다는 물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뼉의 의연금 받은 쿠데타 피해자들 처지는 어떤지? 백진양선생이 떠납니다.

보육원 합창단 육성, 현지 지휘자에게 의뢰

보육원 어린이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던 민성숙 선생이 신상변동으로 지휘를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봉사자를 만나기 전까지, 현지 음악인에게 합창단 결성과 연습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혜봉 하모니카 연주자 내년 초 방문

국내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이혜봉 선생이 내년 2월 순회공연과 하모니카 지도를 위해 떠납니다.

장애인협회에 휠체어, 유모차 전달

11월 초 휠체어 15대와 유모차 10대를 미얀마로 선적했습니다. 선적비가 2배 정도 올라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미얀마 센터 건립부지 조사

미얀마에 작은 숙소를 지으면 앞으로 활동을 여러 분야로 넓힐 수 있고 경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양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의 건립부지를 조사합니다.

미술용품 선물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강원희 원장님이 기증한 크레파스와 색연필 각 50통을 보육원 두 곳에 전달합니다. 내년 2월초에는 경연대회를 가질 예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추석맞이 나눔’



지난 추석에는 푸짐한 음식꾸러미를 주민들에게 나누어드렸습니다. 함께 한 고양 ROTC 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 또 관할구역인 효자동, 고양동 주민 100분에게 밀키트 2종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레토르트식품 7종을 선물했습니다. 기부해주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싸릿말 가을축제



지난 10월 7일, 복지관 앞의 중앙광장에서 싸릿말 가을축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자랑, ‘도미솔 합창단’ 공연과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과 민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공연 후에는 천연염색, 비누공예, 제로웨이스트 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 100여명의 주민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지속종합사회복지관 02)381-8938

주간보호실 소식

주차장에 휠체어 보관실을 마련했습니다



이전 보관실



주차장에 들인 휠체어 보관실

지난 8월 센터 안의 온돌방을 새로 꾸민데 이어, 건물 주차장에 휠체어 보관실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휠체어를 보관하느라 센터 많은 공간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모두 주차장으로 내려가 한결 넓어졌습니다.

우리 센터 이용자들은 실외 이동용 휠체어뿐만 아니라 본인 체형에 맞춘 실내용인, 자세보조용 시트를 부착한 별도의 휠체어가 필요해 1인당 2대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휠체어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물론 직원과 부모님들이 센터를 오가며 새로 지은 휠체어 보관실을 볼 때마다 뿌듯해합니다. 가만히 보니 보관실에 가지런히 정렬해 있는 휠체어들도 저희에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자원봉사해주신 숙명여대생들, 감사합니다.

김세연, 김수림, 김유은, 김태은, 김해나, 김현지, 김혜원, 노채영, 민서연, 민혜빈, 박수빈, 박시연, 서가은, 송상은, 이유진, 조승현, 황서영,

맛있게 먹었습니다.

- 국기호님 과일 1박스
- 전소민 이용자 보호자 새우젓 1통
- 박수빈 우유 1L 4개팩, 마요네즈 5KG 1통, 햄 1KG 1개, 체다치즈 25매입 1개
- 오은주 이용자 어머님 박카스 1박스
- 이운환 이용자 어머님 떡 1박스
- 푸드뱅크 빵 60개

한빛등지 소식

**나는 공부보다는
음악 들을 때가 더 좋다**



나는 뇌병변 장애가 있으며, 부모님이 없다. 대신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신다.

원장님은 옷이나 이불 등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마다 사주시고, 중요한 결정사항이 생기면 처리해 주신다.

오늘 나에게 태블릿 PC와 오디오가 생겼다.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들으라며 사주셨다. 선생님들이 동화책을 틀어줄 때마다 나는 잠이 든다.

헤헤~~

나는 공부보다는 음악들을 때가 더 좋다. 선생님들! 앞으로는 신나는 음악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부커피」에서
에어프라이기 기증**



빵을 기증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 부부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지 않지만 선물하고 싶다며. 반가운 걸음으로 찾아가보니 작고 아담한 매장이었다. 두 분 인상도 좋고 잘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부부는 빵을 냉동실에 얼렸다 주는 것이라 미안하다며 필요하면 에어프라이기도 기증하겠다고 하신다. 마침 등지 에어프라이기가 망가져 쓰지 못하고 있기에 냉큼 받았다.

고맙습니다, '부부 커피' 님.

돈 많이 벌어 등지 식구들에게 선물 많이 해주세요.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먹었습니다.(8월17일~10월16일)

이용자 가족 김명규 어머님 피자. 김민혁 어머님 김. 김영호 동생 빵, 과일. 박주용 가족 식재료. 오상운 어머님 커피. 지만용 아버님 커피. 진 권 부모님 식재료.

후원회원 김영승 초콜릿. 김인곤 코로나나키투. 김희진 빵. 박병훈 음료수. 서민행 라벨 프린터, 빵. 송서아 아이스크림. 여일구 아이스크림. 원현선 음료수.

단체 익명 복숭아. 진주형 음료수. 하인석 음료. 예당 음료수, 롯데카드 식재료, 전기밥솥, 생활용품, 마포희망나눔 휴지, 부부커피 빵, 에어프라이기, 부흥세탁소 호박, 푸드뱅크 빵, 열림교회 복숭아

재단소식

한벗이 위치한 효창동 구역 재개발

한벗회관이 들어선 효창동 구역의 재개발이 내년 초 확정됩니다.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와 회관을 옮기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현 위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간, 도로 옆에 새 건물을 지어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앞으로 4~5년 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벗의 새로운 사업?

재개발이 되면 지금보다 많은 건축공간을 얻게 되어 새로운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회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모임을 11월 19일 갖습니다(표 3, 모임 안내문). 회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벗은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봉사자들이 참여해 일구어 온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에 앞서,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개발하려 합니다.

한벗 45주년

내년 6월이면 한벗이 45주년을 맞습니다. 「한벗」이란 지난 세월, 봉사와 기부활동을 펼친 여러 단체회원과 시민들의 이름입니다. 한벗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이 분들입니다. 지금의 건물도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명예로운 시민자산입니다.

45주년 기념식을 한벗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 펼칠 사업을 공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소식

체류 외국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국내 체류하는 외국장애인은 휠체어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오갈 수 있는 전동휠체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9월, 같이가치 모금을 통해 439만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전동휠체어 3대와 1박 2일 숙박여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부내역 : 참여기부 7,567명 743,200원.

황기순 사랑더하기 기부금 1,000,000원

카카오 응원기부금 528,000원

직접기부 234명 2,121,400원



피부미용 서비스, 월 1회 갖습니다

한국미용협회 피부미용위원회가 주관하는 서비스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피부미용은 12월 3일(토) 오후 3시에 갖습니다.

신청 02)393-0661

특별기부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여행」 기금 창립회원들의 모교회인 만리현감리교회 200만원.
서중석 박사(연세대 이사) 200만원
- 미얀마 센터권립 기금 (방정환기금 회원) 김광숙 30만원, 최재화 100만원
- 미국 달라스 교민 고국 방문 길에 기부해주셨습니다. 김현미 15만원. 여인준(달라스합창단원) 10만원.
- 휠체어 날개달기 방글라데시 교민 이자용 사장님 10만. 김경미 님(이 달에도 20만원). 김경자 5만원
- 휠체어 대여 보증금을 돌려주셨네요. 외국인 2명, 내국인 1명 각 10만원
- 밀알복지재단 주방용 식기세척기(150만원)를 기증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벗 후원계좌 안내〉 • 한벗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벗동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벗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미국 인디언들이 11월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22년 8월 ~ 9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달러, 칼린)>

달러(\$1,520)		칼린(\$880)			
9월	10월	9월		10월	
김애숙 \$20	김애숙 \$20	고향미 \$20	성인숙 \$30	고향미 \$20	유베로니카 \$20
김애주 \$100	김윤원 \$200	김글라라 \$20	이엘리자벳 \$20	김글라라 \$20	성인숙 \$30
김윤원 \$200	김익태 \$20	김은희 \$20	이사벨라 \$20	김은희 \$20	이엘리자벳 \$20
김익태 \$20	스텔라 \$150	김데레사 \$20	이영란 \$20	김데레사 \$20	이사벨라 \$20
스텔라 \$150	장덕환 \$200	김헬렌 \$20	이정숙 \$20	김헬렌 \$20	이영란 \$20
장덕환 \$200	조대웅 \$20	김혜중 \$20	조용순 \$20	김혜중 \$20	이정숙 \$20
정미정 \$20	지나 김 \$20	미영로사 \$20	최정임 \$30	미영로사 \$20	조용순 \$20
지나 김 \$20	케니 김 \$30	백수산나 \$20	허양욱 \$20	박순화 \$20	최정임 \$30
케니 김 \$30	한영숙 \$300	유베로니카 \$20		백수산나 \$20	허양욱 \$20
			\$360		\$380
\$760	\$760	▶ 특별기부 : 백수산나 \$100, 최정임 \$40			
		▶ 최장기 회원인 조마리라 님, 테네시로 이사 가셨습니다.			

<한벗재단>

문숙자(2) 1,000원
김계순(덕암/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춘(2)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안/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균(2) 구재순(2)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2) 김명문(2) 김미영(1)
김선희(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3)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중수(2)
이지영(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장수관(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조규영(2) 주오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진숙(2) 현승혜(1)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희정(2) 구다완(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동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보금(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송파/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재(2) 김인숙(부산/2) 김자경(2) 김재환(2)
김종용/전정원(2) 김정욱(1)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김홍규(1) 나호진(2) 노현욱(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1)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2) 백지웅(1)
서동범(2) 서동원(3)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정석(2) 송유재(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1)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근(2) 오용석(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옥(3)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삼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1)
이성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종빈(2)
이종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이호성(1) 임경민(2) 임난숙(3) 임정순(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1)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2)
천성현(2) 천강석(2) 최명선(2) 최순희(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표창호(2) 하정희(2) 한경미(1)
한성진(2)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황해국(2)

이상 10,000원

김병석(3) 현영돈(2) **이상 15,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3)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울산/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2) 김용신(2) 김인숙(2) 김준희(1)
김학준(2) 김혜은(2) 김홍(2) 문장렬(2)
박지용/유정영(2) 백봉현(2) 백지웅(1)
서성민(2) 신광재(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옥연(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이남숙(2) 이상규(2)
이상권(1)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2)
이숙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화경(1)

이희재(1) 임원기(1) 조윤식(2) 정석명(1)
최경희(1)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계영(1) 김은경(1) 김홍헌(2)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A(1) 박용길(3)
신화용(2) 오청근(2) 윤경자(2) 이관희(2)
이상길(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해실(3) 정병배(2) 홍성관(2)

이상 30,000원

박종성(2)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2)
김지용(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1)
알티엑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유시영(1) 이상국(2) 이종우(2) 최해자(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구태언(2)
김윤희(2) 박지연(2) 안성환(2) 오선환(2)
어재형/신지영(2) 오정선(2) 이승수(2)
이영숙(2) 이상 100,000원

채진석(2) 15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2) 900,000원

<휠체어날개달기>

전교수(2) 이상 3,000원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3) 김보경(1)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숙(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3)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신승엽(2) 안종필(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지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혜선(2) 이희승/김향림(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1)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선행/김은하(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1)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2) 추경은(2)
한정민(2) 한충길(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1) 김덕길(2)
김일생(2) 김진형(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오문영(2) 이상희(2)
이연우/박정현(2) 이해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해실(2)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조민숙(3)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최정희(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건우/박정현(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김혜명(2) 이승훈(2) 강옥순(2)
박봉희(2) 장영순(2)

이상 50,000원

박형상(2) 100,000원
변천섭(2) 200,000원

<한빛동지>

고현우(2) 공아영(2)곽희수(3) 권명현(2)
기효순(2) 김가운(1) 김계자(2) 김라온(1)
김민서(2) 김승빈(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3)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1)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이현주(2) 이혜란(2) 임경숙(2)
임정혜(3)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조상은(2) 조은미(2) 최은미(2)한경희(2)

이상 5,000원

강순기(2) 강유승(2) 강인수(2) 강현(3)
강훈선(2) 고유미(2) 곽봉현(2)
곽영현/장형기(2) 구성모(2) 구혜림(2)
권오준(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석겸(2) 김선옥(2) 김선향(2)
김세연(2) 김성길(2) 김수혜(2) 김연주(1)
김예찬(2) 김용미(1)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2) 김인곤(2) 김인숙(2) 김인순(2)

김정석(2) 김태연(3) 김혜정(2) 김호영(1)
남성현(2) 남진숙(1)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2) 박리라(2) 박상헌(2) 박성준(2)
박용우(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박지원(2) 박찬울(1)
박해진(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2)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서희주(2)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2)
송은숙(2) 송재하(2) 신통연(2) 안국희(3)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향자(2)
양현태(2) 여일구(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원현선(2) 유민화(2)
윤숙현(2) 윤정애(2) 윤태훈(2) 이강전(2)
이경진(2) 이상수A(2) 이상수B(1) 이성림(1)
이소정(2) 이승순(2) 이영순(2) 이옥순(2)
이용식(2) 이재호(2) 이종욱(2) 이지영(2)
이태환(2) 이해순(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영숙(2) 장진섭(2)
장철만(2) 장현주(2) 전애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진(2) 정영석(2)
정완교(2) 정재영(2) 정진하(2) 정향남(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천병수(2) 추지훈(2) 최경희(2)
최경희(2) 최미정(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2) 하인석(2) 한지행(2) 홍윤재(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2) 김여은(2) 김정애(1) 김희량(2)
문정희(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우영옥(1) 원석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영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 정현주(2) 조기택 (2)
조은이(2) 지현정(2) 진 권(2) 채순옥(2)
하복덕(2) 한재형(2) 한초덕(2) 한혜림(2)
황민규(2) 함종수/한정옥(2)

이상 20,000원

권미정(1)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동지1) 박희수(2) 서민행(1) 성낙일(2)
오범균(2) 윤일심(2) 이웅기(2) 이재용(2)
임재창(2) 임해숙(1) 정은영(2) 조길용(1)
조병훈(2) 조은주(2) 최갑석(2) 황정현(2)

이상 30,000원

백승열(2) 40,000원
곽형우(2) 권영수(2) 김간관(2) 김장옥(2)
김종호(2) 김한서(2) 윤미선(2) 이태균(2)
조성윤(2) 조향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주)가람엔지니어링(1) 김영규(1) 열림교회(3)
 강은모(2) 오유인(2) 유정자(2) 이준구(2)
 주지연(2) 차성안(2) 홍영미(1)
이상 100,000원

(주)가람엔지니어링(1) 김현욱(1) 하대주(2)
이상 200,000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1) **400,000원**
 서강어린이집(1) **456,000원**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 안성윤(3)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신순(2) 강완정(2) 강진구(2) 김미진(2)
 김여은(2) 문정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우영욱(1) 원석범(2) 유선민(2)
 이강우(3) 이병수(2) 조기택(2) 조은이(2)
 지현정(2) 진 권(2) 채순옥(2) 하복덕(2)
 한초덕(2) 한혜림(2) 황민규(2)
이상 20,000원

권미정(1) 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2)
 박희수(2) 서민행(1) 윤일심(2) 이태희(2)
 임재창(2) 조길용(1) 조병훈(2) 조은주(2)
 황정현(2)
이상 30,000원

백승열(2) **이상 40,000원**

권영수(2) 김간란(2) 김장옥(2) 김종호(2)
 김한서(2) 김혜원(2) 유경환(2) 이태균(2)
 조성윤(2)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3)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한정환(박종미)(2)
이상 10,000원

김민정(2) **15,000원**

김정훈(2) 김중범(1) 신호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1) **100,000원**

통권 제 292호
 발행일:2022년 11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벗재단
 주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벗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위원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벗동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벗투어:02)702-1515
 고양시 지축종합사회복지관:02)381-8938

22년 8 ~ 9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기 부 금	정기(재단)	10,406,000	인건비	급여/사회보험	15,691,343
	특별후원금	4,930,000		기타후생비	1,000,000
	미국교민후원	4,000,000	운영비	수용비/여비 등	4,220,880
	등지/주간	7,320,000	업무비	직책보조비 등	1,476,900
	날개달기기금	4,516,000	간행비	소식지제작	2,505,000
	방정환기금	1,767,000	공공요금	통신비 등	1,919,390
	마안마센터건립	837,000	제세공과	재산세 등	485,290
임대수입	장애인차량대여	385,000		날개달기	5,146,000
사업수입	관리비 등	1,869,772	사업비	방정환기금	1,982,200
차입금	차입금	8,000,000		기타사업	1,627,558
기타	잡수입	934,760	전출금	등지/주간/지축	3,675,000
			상환금	원금/이자	5,190,000
총계	45,019,532	합계	44,919,561	잔액	99,971

모 집 니 다



내년「한벗회 창립 45주년 기념식」은 앞날을 향해 다시 도약하는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한벗회가 펼친 빈민지역어린이와 소록도환자, 장애인 들을 위한 활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자체건물을 소유한 사회복지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벗을 이끈 1세대의 은퇴와 재단이 위치한 지역재개발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4~5년 후면 재단은 새 건물로 옮기게 되고 만성적인 재정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때 한벗은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누가 맡아 운영할 것인가? 저는 창립 45주년 기념식이 이 물음에 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앞날의 한벗을 꾸밀 봉사자들이 자원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모아야 합니다. 이번 모임은 그 첫 번째 자리입니다. 동지 여러분, 참석해주세요.

모임 내용

- 주제 : ‘한벗의 앞날을 설계하다’ • 발표자 : 채진석, 백진양, 조재선
- 일시/장소 : 2022년 **11월 19일(토) 오후 5시 30분**, 거구장(신촌역 6번 출구 서강대 방향 150m)
- 참가비 : 1인당 4만원 (신청 02-393-0661)

한벗회 창립 45주년 준비대표 채진석 올림

사 람 세 상



한빛의 어머니 김영무 선생

올해 81살, 동네에서 폐지 줍는 노인 행색이다.

월남파병에 자원해 손가락 세 개를 잃고 돌아온 후, 산업은행에 근무하던 1995년 2월, 이동봉사대원으로 가입했다. 집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장애인들을 보고 대원 몇 명이 「일일나들이팀」을 꾸려 장애인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이 게릴라들은 산과 바다, 제주도, 장애인이 못 가본 사우나에도 같이 다녔다. 15년 동안 무려 200회나 된다. 이를 이끈 분이 이 허술한 노인이다.

회갑 때는 자식들이 내놓은 400만원을 한빛회관 건립비로 기부해버린다. 퇴직 후 연금100만원. 이 많은 돈으로 끊임없이 기부한다. 3개월 동안 폐지를 모아 가난한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사주는가 하면, 주 4일, 자비로 특수학교생 등교지원도 2년이나 계속했다.

2010년부터는 장애인집 고쳐주는 노동자인 '사랑의 러브하우스' 회원이 되어 매주 1~2회 도배 보조를 12년째 하고 있다. 80노인인데도 도무지 약속 잡기 힘들다. 한빛 뿐 아니라 뇌성마비복지회, 청우회, 어우러기, 독립연대 같은 장애인단체 행사에도 나타난다. 평생 몸을 많이 써 척추수술까지 받았다. 그래도 한빛의 유모차 선적작업을 2년 동안이나 이어갔다.

이 노인의 눈에서 나오는 맑은 빛을 보라!

이분은 장애인 모시는 '봉사자'가 아니다. 그저 저절로 누구와도 어울릴 뿐이다. 기왕이면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 지난 7월말, 집수리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병원에서 두 번에 걸쳐 척추협착수술 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다.

10월 25일, 장례식장에 모인 러브하우스대원과 일일나들이팀원들은 말을 거두었다.

어머니 사랑은 거름처럼 썩어짐으로써 소명을 다한다.

장애인과 스스럼없던 김영무 선생, 아무 말 없이 떠나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다.